

기고

우리집 대피계획
어린이 안전을 지키는 가장 쉬운 준비

겨울철을 맞아 가정 내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집 대피계획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불이 났을 때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 가족끼리 어떤 역할을 맡을지 미리 정해두는 것만으로도 인명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우리집 대피계획의 첫 단계는 집 안의 위험요인을 찾아보는 것이다.

콘센트에 너무 많은 전기제품을 꽂아 두거나, 전기장판을 접어 사용하는 행동은 화재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주방에서 불을 사용할 때 주변에 휴지나 수건 같은 타기 쉬운 물건을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대피 경로를 정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침실에서 거실, 현관, 계단을 거쳐 밖으로 나가는 기본 경로를 가족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한다.

만약 현관 쪽에 불이나 연기가 심해 나갈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 베란다나 안방기 등 두 번째 탈출 방법도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세 번째로, 가족 역할 분담도 안전을 높이는 요소로 꼽힌다. 예를 들어, 한 가족은 119 신고를 받고, 다른 사람은 어린이나 노약자를 돕는 식으로 역할을 나누면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외부로 대피한 후에는 모일 장소를 사전에 정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아파트 놀이터, 단지 정문, 학교 운동장 등 모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가 적합하다.

집합장소가 정해져 있을 경우, 가족이 흩어지는 상황을 예방하고 대피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대피계획은 한 번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걸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실제로 이동해 보면 어두운 곳, 장애물, 위험요인 등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 대피계획을 더 안전하게 보완할 수 있다.

우리집 대피계획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안전수칙이다. 10분만 투자해도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준비가 된다. 각 가정의 스스로의 대피계획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길 바란다.

강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김연웅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마르크스와 엥겔스)은 파리에서 다시 만났고, 서로의 우정을 확인한다. 이후, 엥겔스는 평생 동안 마르크스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함께 『자본론』 집필에도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엥겔스가 말로 마르크스의 아내와 함께 『자본론』의 초고를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마르크스는 악필(惡筆)이었고, 책으로 묶어서 만들기에겐 체계가 부족한 사람이었다.

독일 혁명이 일어나자 조국 독일로 돌아온 엥겔스는 마르크스와 함께 「공산당 선언」을 발표한다. 두 사람이 공동으로 집필한 「공산당 선언」은 1848년 '프랑스 2월 혁명' 직전에 발표된 과학적 공산주의의 규범적인 문서로서, "인류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로서, 부르주아 계급(자본가 계급)을 쳐부수고 프롤레타리아 계급(무산계급)의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자본주의는 그 자체의 내적 모순에 의해 반드시 무너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산주의자들의 투쟁 목표는 생산 수단(기계, 도구, 공장 등)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의 자유로운 발전을 이룩해나가는 것이다. 나아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혁명은 공산당이 주도해야 하며, 그

강성철 교수의 철학이야기

광주교육대학교 명예교수, 철학박사 유튜브 '강성철 철학티비', '강성철 문학티비' 운영중



철학자들의 우정-마르크스와 엥겔스(2)

주체는 왕이 아닌 노동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의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라고 하는 이 책의 마지막 구호는 이를 잘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다시 이것이 문제가 되어, 마르크스는 추방을 당하는 신세가 된다. 그리하여 마르크스는 마지막 종착지인 런던(영국의 수도)으로 가 남은 인생을 보낸다.

그렇다면, 마르크스의 평생 친구인 엥겔스는 어떤 인물일까? 마르크스보다 두 살 아래인 엥겔스는 1820년 11월 28일, 독일 바르멘 시에서 방직공장 경영자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는 아들을 자본가로 키우려는 아버지의 뜻에 의하여 김나지움(중고등학교 과정)을 중퇴하고 브레멘 상사(무역 및 상업회사)에서 일했다.

이 무렵 엥겔스는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의 착취로 고통 받는 현실을 보고, 「도이칠란트 통신」(뉴스)을 취재하고 보급하는 언론사)에 지배계급을 비판하는 수많은 글들을 발표하였다. 1841년 엥겔스는 베를린에서 지원병으로 포병 연대에 들어갔으며, 베를린 대학에서 철학 강의를 들으며 해군 좌파가 되었다.

군 복무를 마친 그는 영국의 맨체스터로 건너가 영국 노동계급의 비참한 삶을 깊이 연구하였고, 차티스트 운동(1838~1848년 노동자들이 주동하여 전개된 영국의 민중운동) 관련자들과 관계를 맺었으며, 영국의 출판물들에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엥겔스의 이러한 현실 비판은 마르크스가 현실에 맞지 않는 사회주의 사

상을 극복하고 '과학적 사회주의'라는 독자적인 사상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영국에서 귀국하는 도중 파리에서 마르크스와 만난 엥겔스는 둘 사이에 확고한 우정을 유지하며, 협력을 이어나간다. 이들은 1844~1846년에 걸쳐 공동저서 『신성 가족』과 『독일 이데올로기』를 출판하면서, 변증법적 유물론의 토대를 쌓았다. 또 공산주의 동맹을 조직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고, 그 동맹의 행동 지침으로 「공산당 선언」(1848)을 발표하게 되었던 것이다. 1848년에는 독일 쾰른에서 마르크스와 함께 「신라인신문」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이듬해 독일 라인 지방과 남부 독일에서 무장투쟁이 일어나자, 엥겔스는 직접 군사 행동에 참가하여 작전을 지도하였다. 그러나 무장투쟁이 실패한 후 런던으로 건너갔으며,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운동을 적극 도왔다. 그리고 마르크스가 『자본론』 1권을 탈고하고 생을 마칠 때까지 거의 한평생을 함께 하며 물질적으로 도왔다.

-다음 호 '마르크스와 엥겔스' 3편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 투고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기히터와 전기장판, 열선 등 전기난방기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방용품은 겨울철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만, 사용 환경에 따라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겨울철 전기화재는 대부분 일상 속 작은 방심에서 시작됩니다. 오래 사용한 전기제품이나 전선 상태를 미처 살피지 못한 채

겨울철 전기 사용, 안전이 따뜻함을 지켜줍니다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용 전 외관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이상이 느껴질 때는 잠시 사용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기난방기기를 장시간 연속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간중간 전원을 꺼 주는 여유도 필요합니다.

전기장판 역시 올바른 사용이 중요합니다. 접힌 상태로 사용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올려두면 내부 열선이 손상될 수 있어 주

의가 필요합니다. 보관할 때는 말아서 두고, 온도는 생활에 불편하지 않은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보다 안전한 사용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화재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 전열기기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전기 사용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의 멀티탭에 많은 제품을

연결하면 과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력 소모가 큰 기기는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는 것이 비교적 안전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류 차단 기능이 있는 멀티탭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난방기기를 조금 더 세심하게 사용하고, 평소와 다른 점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화재 위험은 충분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옮겨올 때 따뜻함과 함께 안전도 함께 지켜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담당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이정호

오늘의 운세 2026년 1월 19일 월요일 (음력 12월 1일)

Grid of 12 zodiac signs with their respective animal icons and daily fortune text. Signs include Rat, Ox, Tiger, Rabbit, Dragon, Snake, Horse, Goat, Monkey, Rooster, Dog, Pig.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Kwangjeon Maeil Shinmun, including email, phone numbers, and address.

Large advertisement for 'Korea's Life Line' (대한민국의 생명선) featuring a hand holding a map of Korea, with logos for Ex Korea Express and 50th anniversary of Korea Express.